

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 청소년들의 심리적 적응 *

Psychological Adaptation of East German Adolescents After Reunification

김 혜 온 **

Kim, Hye On

서 봉 연 ***

Suh, Bong Yeon

이 순 형 ****

Yi, Soon Hyung

ABSTRACT

The process of political and economic transformation of Germany following reunification has been well documented, but the question of psychological reunification is addressed by the present study. In order to analyze how East German adolescents adapted to the changing socialization context following reunification, questionnaires on value orientation, self-efficacy, subjective well being, coping, attitude toward violence and toward reunified German society were administered to 149 high school students. Results indicated that subjects had high scores on value orientation in private life and used active coping strategies. They had high scores in self-efficacy and subjective well being. Their political attitudes were complex and diverse. There were group differences by gender and type of school attended.

I. 서 론

국가의 몰락과 같은 대격변으로 이념과 사회경제적 구조가 바뀔 때 청소년들은 어떻게 그 상황을 해석하고 위기를 극복하는지는 중요한 연구과제이며, 독일의 경우가 이러한 연구 사례가 된다.

아울러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통일을 준비하는 의미있는 연구과제가 될 수 있다.

1989년 가을 독일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구 동독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였

* 본 논문은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해외지역연구 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목포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다. 체제붕괴와 같이 기존의 질서와는 반대되는 체제로의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는 개인은 직접적인 사회 경제적 변화와 이에 따른 간접적 변화에 적응하는 부담을 가지게 된다.

통일 이후 동·서독 간에 정치제도, 법률·행정조직, 경제조직은 비교적 빠르게 일원화될 수 있었다(Diewald & Mayer, 1996). 그러나 정치적, 경제적 통일을 넘어선 문화적, 심리적 통합이 쉽지 않았다고 보고되었다(Trommsdorff, 1994). 동독지방¹⁾ 주민들은 체제변화에 대해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통일이후 개인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가 증가하였지만 구체제에서 보장되었던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감이 흔들린다고 생각하고 있다(Mayer, 1996).

통일 이후 동·서독지방 청소년들을 비교하는 연구들이 상당히 많았다(Wagner & Sydow, 1996). 동 서독 주민들은 자아상, 통제가능성에 대한 기대, 가치관, 미래에 대한 기대 수준이 비슷했다(Schnabel, Baumert, & Oeder, 1994).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두 집단이 적극적인 해결책을 많이 사용하며(Kirsch, Franz, Herboth, Mallwitz, Meckelman & Regusch, 1995) 청소년들이 체제변화에 비교적 잘 적응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동독지방의 청소년들이 서독지방의 청소년들보다 단지 사회 참여와 능력에 대해 더 낮게 기대했고,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동독지방 청소년들이 체제변화에의 적응 때문에 더 많이 긴장감을 느끼고, 우울한 경향도 더 강한 것으로 보고되었다(Wagner & Sydow, 1996). 통일 이후 동독지방의 구조조정 영향으로 이사, 전학을 해야 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었다. 이들은 서독에서 교육제도, 교과과정, 평가방법의 변화를 경험했는데 학업성취도에서는 서독 학생들과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Roeder & Baumert, 1994; Kirsch et al, 1995).

동·서독 지방 청소년들을 비교하는데 한 가지 언급할 점은 1980년대 후반에 이미 이들의 가치관이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났다(Friedrich & Griese, 1991)는 점이다. 이는 구 동독지역에 이미 197, 80년대로부터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원인으로 서독의 메스콤의 영향과 비공식적인 여가문화의 확산(Schmidtschen, 1994)을 들고 있다. 사실 196, 70년대의 구 동독 청소년들은 당시 서독의 청소년들에 대해 '물질지향적, 자기중심적, 연대의식의 부족' 등의 부정적으로 평가했었다(Friedrich & Förster, 1996). 이와 같이 동·서독을 구별하는 이른바 '우리-그들-도식'은 1980년대에 들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다가 통일이후 1992년을 기점으로 다시 부활하였다. 이는 만성실업과 통일 이후 생활수준의 향상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은 실망감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93, 4년을 기점으로 가장 강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통일 이후 사회적 불만이 누적되면서 편집된 '집단적 자아상'이 만들어지고 이른바 '희생자 의식(Opferbewusstsein)'에 의해 동독지방 청소년들 간의 내적 결집력이 강해지며 외부와의 거리감을 두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구 동독 청소년들로 하여금 극우파에 동조하게 하며 폭력과 같은 공격성을 유발하게 하였다(Trommsdorff, 1994; Starke, 1995; Golz, 1994). 1994년 조사에서 청소년들의 86%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폭력이 사용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Petzold & Joy, 1996), 1994년 이후 동독지방 청소년들의 만족감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Förster, Friedrich, Müller &

1) 동독지방(Ostdeutschland) : 과거 동독(DDR)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통일 이후 지리적으로 구분됨

Schbart, 1993; Veen, 1994).

동독지방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성별, 학교 종류 (인문계/실업계)에 따라 사회의식과 적응에 집단 간의 차이가 있었다(Behnken, Günther, Kabat vel Job, Keiser, Karig, Krueger, Lindner, Wensierski, & Zinnecker, 1991). 실업계 학생들은 직업교육 후에도 실업을 경험하고, 그들의 12%는 직업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변화를 위기 상황으로 더욱 지각하였다(Wagner & Sydow, 1996).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통일 이후 사회적 조건이 더 불리하게 작용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여성의 실업률이 급증하였고, 탁아시설의 사용조건 등이 악화되어 여성의 취업이 더 어려워진 것에 기인한다(Betram, 1998).

통일 이후 청소년들은 아동기로부터 성인기로 넘어가는 발달과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발달과업과 사회, 문화적 충격을 소화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경험하며,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했다(Hurrelmann, 1991). 개인적 자원으로는 가치관, 스트레스 대처양식, 자기효능감 등이 포함되고 사회적 자원으로는 인간 관계에 의한 지원체계를 말한다. 이중 가족, 친구 관계와 같은 사회적 자원은 청소년의 적응에 상당히 긍정적 기능을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Wagner & Sydow, 1996).

가치관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선택의 기준이 되

고 행동을 유도하는 동기이며 사회적 변화에의 적응을 위한 기초이다(Reimann, 1985 ; Klages, 1983). 정치 사회적 변화는 개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삶의 만족도나 긍정적 태도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통제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 높게 나타나므로 청소년들의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변화에의 적응과정에서 중요한 개인 자원으로 기능하게 된다.

통일과 같은 정치체제의 변화는 제도상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에게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장기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이 된지 9년이 되는 시점에서 청소년들이 구 동독의 사회화 조건과 통일 이후 사회, 문화적 조건과의 차이, 즉 이념, 가치관, 부모의 사회적 지위의 변화, 교육제도 등의 차이를 어떻게 소화해내고 어느 정도 심리적 적응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개인 자원 변수인 가치관, 대처양식,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을 살펴보고 또한 청소년들의 통일 독일사회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려고 한다. 아울러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성별, 연령, 부모의 교육정도, 부모의 실직 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소속된 학교의 종류에 따라 진로가 정해지고 미래에 대한 설계가 달라지므로 학교 변수에 의한 청소년의 사회인지의 차이도 분석하려고 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동독지방 Leipzig시 2개 학교에서 (인문계, 실

업계)²⁾ 청소년 1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중에 회수된 149명의 자료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

2) 실업계는 서독지역의 Hauptschule와 Realschule의 혼합형태의 학교이다. 수료자는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고급 사무직, 기능직의 직업교육을 받는다.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 학교종류 | 성별 | 부교육 수준 | 모교육 수준 | 부직업 | 모직업 | 계 |
|------|------|--------|--------|-------|-------|----|
| 인문계 | 남 29 | 고학력 39 | 고학력 37 | 취업 50 | 취업 37 | 60 |
| | 여 31 | 저학력 21 | 저학력 23 | 실업 10 | 실업 23 | |
| 실업계 | 남 46 | 고학력 19 | 고학력 16 | 취업 64 | 취업 52 | 89 |
| | 여 43 | 저학력 70 | 저학력 73 | 실업 25 | 실업 37 | |

았다. 이들의 성별, 부모취업 여부, 교육수준에 따른 분포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직업종류를 독일 교육청의 반대로 알아볼 수가 없었다. 부모 교육수준에서 고학력은 대학 중퇴이상의 학력을 말한다. 연령은 14세에서 18세로 평균연령은 15.45세(SD= .76)이다. 이들은 통일 당시 6-9세로 통일 전, 후의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통일전의 동독사회에서의 사회화 조건과는 차이가 있는 맥락 속에서 성장하였다.

2. 조사도구

(1) 가치관 척도의 구성 : Kabat, Petzold, Götze와 Coenen(1995)이 동독지역 청소년과 성인의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처행동을 연구하기 위해 개발한 가치관 척도로 9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관심의 실현(4문항, Cronbach α =.68 예: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을 하고 싶다), 소시민적 가치관(5문항, Cronbach α =.63 예: 나의 집을 갖고 싶다), 가족(3문항, Cronbach α =.35 예: 자녀를 갖고 싶다), 갈등의 해결(3문항, Cronbach α =.42 예: 모순되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 인본주의적 가치관(5문항, Cronbach α =.51 예: 정의를 위해 살고 싶다), 권력지향적 가치관(3문항, Cronbach α =.49 예: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함을 느끼고 싶다), 직업(5문항, Cronbach α

=.64 예: 성공적인 직업을 가지고 싶다), 학업(3문항, Cronbach α =.73 예: 학교에서의 과업 수행을 잘하고 싶다), 사회적 적응(4문항, Cronbach α =.48 예: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의 총 31문항이 6점 척도로 제시되었다.

(2) 자기 효능감 척도의 구성 : Ulrich(1985)가 사용한 '자기효능감' 척도와 Jerusalem(1990)의 '일반적 능력감'척도를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5개 하위영역이 6점 척도로 제시되었다. 자기비하(3문항, Cronbach α =.72 예: 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다), 자기만족 (3문항, Cronbach α =.40 예: 나는 나 자신에 만족한다) 사회적 효능감(3문항, Cronbach α =.69 예: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어렵다), 신체/외모(3문항, Cronbach α =.62 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나는 꽤 좋게 생겼다), 효능감(7개문항, Cronbach α =.80 예: 나는 노력만 하면 어려운 문제도 해결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심리적 안녕감 :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조사하기 위하여 Zielke와 Kopf-Mehnert (1978)의 '경험과 행동의 변화척도'중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23개 문항을 선택하여 6점 척도로 제시하였다. 하위영역은 우울(10문항, Cronbach α =.84 예: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미래에 대한 불안 (6문항, Cronbach α =.80 예: 미래에 대

해 생각하면 암담하다), 통제가능성(4문항, Cronbach α =.64 예: 나는 나 자신과 미래에 대해 분명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불확실성(2문항, Cronbach α =.59 예: 내 감정의 기복이 더 심해졌다), 정서적 안정(3문항, Cronbach α =.51 예: 마음이 안정되었다), 자신감 (3문항, Cronbach α =.55 예: 나는 자신감이 있다)이다.

(4) 대처 행동 : Jank, Erdmann 과 Boussein 이 개발하고 Kabat, Petzold, Götze와 Coenen (1995)이 사용한 대처행동 척도로 6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상황의 재해석(3문항, Cronbach α =.64 예: 내 문제가 대수롭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상황통제(3문항, Cronbach α =.69 예: 원인 제거를 위한 해결책을 찾는다), 자신을 괴롭힘(2문항, Cronbach α =.45 예: 나 자신에게 화를 낸다), 수용(3문항, Cronbach α =.51 예: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인다), 사회적 자원의 활용 (3문항, Cronbach α =.48 예: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는다), 무반응 (2문항, Cronbach α =.55 예: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회피 (3문항, Cronbach α =.56 예: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처음부터 피한다), 능력의 향상(2문항, Cronbach α =.59 예: 정보를 입수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영역의 문항이 6점 척도로 제시되었다.

(5) 폭력에 대한 태도 : 폭력 사용에 동조하는 이유를 개인적 이유(3문항), 보수주의에 대한 방어 (2문항), 외국인과 좌익에 대한 방어(2문항)로 구별하여 질문하고, 폭력에 절대 반대하는지 혹은 법의 허용 범위 안에서 찬성하는지 여부를 질문하는 것을 포함하여 총 9개 문항을 제시하였다.

(6) 독일인으로서의 정체성 : 자신을 독일인으로 생각하는가 혹은 동독인으로 생각하는가를 선

택하는 1개 문항을 제시하였다.

(7) 독일 사회에 대한 태도 : Hofmann(1995)이 1991년 통일 직후 사용하였던 설문지 중 독일 사회의 발전 방향(예: 외국인 정책, 서유럽, 동유럽 지향 등 5개 문항), 동독 지방의 경제 문제의 원인(예: 급속한 통일, 동독지방의 정책, 과거 40년의 경제 실정 등 5개 문항)에 대해 ‘예, 아니오’의 선택문항을 제시하고, 독일 미래에 대한 신뢰도 8개 문항(예: 시장경제, 민주주의, 정치인 등)에 대한 청소년들의 긍정적, 부정적 태도를 6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8) 동·서독 주민의 특성 비교 : 가치관, 생활습관, 재산소유, 역사경험의 4개 영역에서 동·서독 주민의 차이점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동·서독 주민들의 특성을 묻는 8개 문항(예: 이타적 자세, 정치적 개방성, 사회성 등)이 6점 척도로 제시되었다.

2. 결과

설문조사한 자료를 통계분석하였으며 그 분석 결과를 제시할 때 동일한 도구를 사용해 경과를 보고한 선행연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분석값을 비교값으로 제시하였다.

1) 가치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독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가족, 직업, 학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소시민적 가치, 사회적 관심의 실현, 인본주의적 가치도 중요하다고 평가한 반면에 권력지향, 사회적 적용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를 다시 Kabat, Petzold, Götze와 Coenen(1995)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1993년 조사 당시 청소년들이 인본주의

<표 2> 가치관

| | 전체평균 (표준편차) | 1993 ^{a)} | 집단평균 (표준편차) | F | 유의도 | |
|---------------|----------------|--------------------|----------------|------|-----------|------|
| 사회적 관심의 실현 | 4.59(.67) | 4.16(.75) | 인문 4.78(.60) | (A) | 7.93 ** | .006 |
| | | | 실업 4.47(.69) | | | |
| | | | 남 4.48(.72) | (B) | 5.08 * | .026 |
| | | | 여 4.72(.59) | | | |
| | | | A × B | .50 | .479 | |
| 소시민적 가치 | 4.62(.65) | 4.33(.75) | 인문 4.48(.69) | (A) | 4.74 * | .031 |
| | | | 실업 4.71(.61) | | | |
| | | | 남 4.69(.65) | (B) | .84 | .361 |
| | | | 여 4.54(.65) | | | |
| | | | A × B | 3.46 | .065 | |
| 가족주의 | 4.84(.98) | 4.66(1.05) | 인문 4.92(1.04) | (A) | .56 | .473 |
| | | | 실업 4.79(.95) | | | |
| | | | 남 4.73(1.05) | (B) | 3.08 | .081 |
| | | | 여 4.96(.90) | | | |
| | | | A × B | 3.38 | .068 | |
| 마음의 평화 | 4.33(.79) | 4.83(.90) | 인문 4.51(.74) | (A) | 4.90 * | .028 |
| | | | 실업 4.21(.81) | | | |
| | | | 남 4.30(.78) | (B) | .40 | .524 |
| | | | 여 4.36(.81) | | | |
| | | | A × B | 1.25 | .264 | |
| 인본주의 가치 | 4.55(1.25) | 5.00(1.05) | 인문 5.03(1.65) | (A) | 15.55 *** | .000 |
| | | | 실업 4.22(.74) | | | |
| | | | 남 4.37(.81) | (B) | 3.62 | .059 |
| | | | 여 4.72(1.55) | | | |
| | | | A × B | 2.01 | .158 | |
| 권력지향 | 3.41(.81) | 2.83(1.20) | 인문 3.28(.91) | (A) | 2.16 | .143 |
| | | | 실업 3.49(.73) | | | |
| | | | 남 3.51(.87) | (B) | 1.67 | .197 |
| | | | 여 3.31(.74) | | | |
| | | | A × B | .43 | .509 | |
| 직업지향 | 4.84(.71) | 5.33(.75) | 인문 4.66(.81) | (A) | 6.32 * | .013 |
| | | | 실업 4.96(.61) | | | |
| | | | 남 4.93(.72) | (B) | 1.71 | .193 |
| | | | 여 4.75(.72) | | | |
| | | | A × B | .93 | .336 | |
| 학업 | 4.79(.79) | 5.16(.90) | 인문 4.50(.90) | (A) | 15.27 *** | .000 |
| | | | 실업 5.00(.65) | | | |
| | | | 남 4.80(.89) | (B) | .08 | .768 |
| | | | 여 4.79(.68) | | | |
| | | | A × B | 1.01 | .316 | |
| 사회적 적용 | 3.75(.75) | 3.67(.90) | 인문 3.59(.79) | (A) | 4.27 * | .040 |
| | | | 실업 3.85(.71) | | | |
| | | | 남 3.74(.83) | (B) | .118 | .738 |
| | | | 여 3.76(.66) | | | |
| | | | A × B | .36 | .548 | |

* p<.05, ** p<.01, *** p<.001

출처: Kabat, Petzold, Götze & Coenen(1995) (조사대상자 연령:14-18세, 남 565명, 여 789명)

적 가치관, 마음의 평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이의 상대적 중요도는 떨어진 반면에 상대적으로 가족은 더 중요하게 평가했다. 직업은 변함없이 가장 중요한 가치기준으로 평가되었다.

청소년의 가치관을 보면, 사회적 관심의 실현, 마음의 평화, 인본주의 이념은 인문계 학생들이 실업계 학생들보다 더 중요하게 응답한 반면에

소시민적, 물질적 가치, 직업, 학업, 사회적 적응은 실업계 학생들이 더 중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성별에 의한 사회적 관심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사회적 관심의 실현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학교 종류와 성별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부모의 취업 여부, 교육 수준에 따른 집단간 차이도 유의하지

<표 3> 자기효능감

| | 전체평균 (표준편차) | 1993 | 집단평균 (표준편차) | F | 유의도 | |
|--------|----------------|-----------|----------------|--------|-----------|------|
| 자기비하 | 2.26(1.01) | 2.5(.75) | 인문 2.36(1.01) | (A) | .83 | .364 |
| | | | 실업 2.20(1.01) | | | |
| | | | 남 2.04(.93) | (B) | 5.71 * | .017 |
| | | | 여 2.49(1.05) | | | |
| | | | A × B | 2.18 | .141 | |
| 자기만족감 | 4.26(.88) | 4.33(.90) | 인문 4.22(.83) | (A) | .15 | .699 |
| | | | 실업 4.29(.93) | | | |
| | | | 남 4.51(.76) | (B) | 10.41 ** | .002 |
| | | | 여 4.03(.94) | | | |
| | | | A × B | .07 | .788 | |
| 사회적효능감 | 4.37(1.00) | 4.33(.90) | 인문 4.31(1.04) | (A) | .42 | .515 |
| | | | 실업 4.42(.98) | | | |
| | | | 남 4.40(1.02) | (B) | .03 | .847 |
| | | | 여 4.35(.99) | | | |
| | | | A × B | .22 | .638 | |
| 유능감 | 4.10(.66) | 2.66(.90) | 인문 4.07(.70) | (A) | .14 | .70 |
| | | | 실업 4.11(.63) | | | |
| | | | 남 4.09(.68) | (B) | .24 | .62 |
| | | | 여 4.11(.64) | | | |
| | | | A × B | 2.11 | .148 | |
| 신체/외모 | 3.85(.91) | 4.00(.90) | 인문 3.88(.80) | (A) | .32 | .572 |
| | | | 실업 3.83(.99) | | | |
| | | | 남 4.20(.86) | (B) | 21.63 *** | .000 |
| | | | 여 3.49(.82) | | | |
| | | | A × B | 4.74 * | .031 | |

* p<.05, ** p<.01, *** p<.001

출처: Kabat, Petzold, Götze & Coenen(1995)(조사대상자 연령:14-18세, 남 565명, 여 789명)

<표 4> 심리적 안녕감

| | 전체평균 (표준편차) | | 집단평균 (표준편차) | | F | 유의도 |
|--------------|----------------|-------|----------------|--------|-----------|------|
| 우울 | 2.56(.77) | 인문 | 2.63(.81) | (A) | .78 | .378 |
| | | 실업 | 2.51(.75) | | | |
| | | 남 | 2.29(.67) | (B) | 16.05 *** | .000 |
| | | 여 | 2.82(.78) | | | |
| | | A × B | | 1.06 | .304 | |
| 미래에 대한 불안 | 2.79(1.00) | 인문 | 2.81(.84) | (A) | .01 | .91 |
| | | 실업 | 2.78(1.10) | | | |
| | | 남 | 2.54(.96) | (B) | 7.34 ** | .008 |
| | | 여 | 3.05(.98) | | | |
| | | A × B | | 5.39 * | .022 | |
| 통제 가능성 | 3.73(.86) | 인문 | 3.62(.84) | (A) | 1.63 | .204 |
| | | 실업 | 3.81(.86) | | | |
| | | 남 | 3.98(.80) | (B) | 11.28 ** | .001 |
| | | 여 | 3.48(.84) | | | |
| | | A × B | | 1.00 | .318 | |
| 불확실성 | 3.37(1.03) | 인문 | 3.12(1.06) | (A) | 6.19 * | .014 |
| | | 실업 | 3.53(.98) | | | |
| | | 남 | 3.26(.99) | (B) | 2.61 | .108 |
| | | 여 | 3.48(1.07) | | | |
| | | A × B | | 1.34 | .255 | |
| 정서적 안정 | 4.02(.77) | 인문 | 3.97(.85) | (A) | .29 | .587 |
| | | 실업 | 4.06(.72) | | | |
| | | 남 | 4.19(.76) | (B) | 7.89 ** | .006 |
| | | 여 | 3.85(.74) | | | |
| | | A × B | | .69 | .407 | |
| 자신감 | 4.25(.76) | 인문 | 4.37(.77) | (A) | 1.89 | .171 |
| | | 실업 | 4.20(.75) | | | |
| | | 남 | 4.37(.83) | (B) | 2.48 | .117 |
| | | 여 | 4.16(.67) | | | |
| | | A × B | | .33 | .563 | |

* p<.05, ** p<.01, *** p<.001

않았다.

2) 자기효능감

동독청소년들은 대체로 자기만족, 사회적 효능

감, 능력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표 3 > 참조). 신체/외모에 대해 중간 정도로 평가하고 자기 비하는 별로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1993년 당시의 조사 결과(Kabat, Petzold, Götze

& Coenen, 1995)와 비교하면, 이 연구의 대상들이 자기 능력에 대해 더욱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능력감에는 성별 차이만이 있었는데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자기만족감이 높고 자기 비하를 덜 하며 신체/외모에 대해서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동독의 남성 중심의 사회적 특성이 반영되어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더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학교 종류와 성별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했는데, 실업계 여학생들이 자신의 신체/외모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평가(M=3.33, SD=.80)를 했다. 부모의 취업 여부, 교육 수준에 따른 집단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3) 심리적 안녕감

<표 4>에서와 같이 동독청소년들은 전체적으로 정서적 안정과 자신감을 보이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증세는 보이지 않았다. 이 영역은 동일한 조사도구를 사용한 선행 연구가 없어서 비교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심리적 안녕감에는 성차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울, 미래에 대한 불안을 더 높고, 통제 가능성이나 정서적 안정은 더 낮았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특히 실업계 여학생들(M=3.20, SD=1.01)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구조 조정이 실업계 여학생들이 진출할 직종에 더 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사한다.

4) 대처행동

동독 청소년들의 대처행동을 보면 <표 5>에서와 같이 중앙값을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동독 청소년들은 상황통제, 사회적 자원의 활용, 능력의 향상과 같은 비교적 적극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수용과 무반응, 상황의 재해석,

회피와 같은 소극적인 대처방법이나, 자신을 괴롭히는 것과 같은 부정적 대처방법은 비교적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3년도 조사결과(Kabat, Petzold, Götze & Coenen, 1995)와 비교하면 당시에도 청소년들은 능력의 향상이나 상황통제와 같은 적극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는데 현재 조사에서도 이 경향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사회적 자원의 활용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처행동에서는 학교 종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단지 자기 괴롭힘에는 성차가 있어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는 더 자기를 괴롭히는 경향이 있다.

5) 폭력사용에 대한 태도

<표 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폭력 사용에 대해서 50%정도의 학생들이 절대 반대 의사를 보이고 44.3%의 청소년들이 법의 범위 안에서 폭력 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개인적 이유보다는 정치적 이유로 폭력 사용에 더 많이 동조하였는데 특히 보수주의로부터 방어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폭력을 사용될 수 있다는 견해가 더 강했다. 집단간의 차이를 보면 실업계 학생들이 개인적 이유라든가 좌익에 대한 방어로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더 많이 보인 반면에 인문계 학생들은 신나찌 집단과 같은 극우파 추방을 위해서 폭력을 수용할 수 있다는 학생의 비율이 더 높았다. 한편 타인 혐오와 불쾌한 경우 등 개인적 이유에서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견해는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의 비율이 더 높았다.

6) 독일인으로서의 정체성

<표 7>에서와 같이 자신을 독일인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동독인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60%가 독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표 5> 청소년들의 대처 행동

| | 전체평균 (표준편차) | 19935 | | 집단평균 (표준편차) | | F | 유의도 |
|--------------|----------------|------------|-------|----------------|-----|---------|------|
| 상황의 재해석 | 3.20(.91) | 2.33(.90) | 인문 | 3.09(.80) | (A) | 1.45 | .229 |
| | | | 실업 | 3.28(.98) | | | |
| | | | 남 | 3.22(.98) | (B) | | |
| | | | 여 | 3.18(.85) | | .06 | .799 |
| | | | A × B | | | .07 | .783 |
| 상황통제 | 4.34(.70) | 4.33(.45) | 인문 | 4.36(.59) | (A) | .13 | .716 |
| | | | 실업 | 4.33(.77) | | | |
| | | | 남 | 4.45(.76) | (B) | | |
| | | | 여 | 4.23(.63) | | 2.91 | .090 |
| | | | A × B | | | 1.22 | .272 |
| 자신을 괴로힘 | 2.94(.89) | 2.69(1.20) | 인문 | 3.05(.83) | (A) | 1.12 | .291 |
| | | | 실업 | 2.88(.93) | | | |
| | | | 남 | 2.72(.91) | (B) | | |
| | | | 여 | 3.18(.80) | | 8.86 ** | .003 |
| | | | A × B | | | .86 | .355 |
| 수용 | 3.37(.67) | 3.16(.90) | 인문 | 3.35(.57) | (A) | .10 | .749 |
| | | | 실업 | 3.39(.73) | | | |
| | | | 남 | 3.40(.69) | (B) | | |
| | | | 여 | 3.35(.65) | | .12 | .726 |
| | | | A × B | | | .28 | .595 |
| 사회적 자원 활용 | 4.14(.73) | 3.00(.90) | 인문 | 4.21(.64) | (A) | 1.09 | .279 |
| | | | 실업 | 4.09(.79) | | | |
| | | | 남 | 4.23(.80) | (B) | | |
| | | | 여 | 4.04(.65) | | 1.84 | .177 |
| | | | A × B | | | .93 | .334 |
| 무반응 | 3.07(.89) | 3.33(1.05) | 인문 | 3.06(.75) | (A) | .002 | .963 |
| | | | 실업 | 3.07(.97) | | | |
| | | | 남 | 3.22(.95) | (B) | | |
| | | | 여 | 2.91(.79) | | 3.17 | .077 |
| | | | A × B | | | 3.27 | .832 |
| 회피 | 3.68(.65) | 2.83(.75) | 인문 | 3.60(.59) | (A) | 1.31 | .254 |
| | | | 실업 | 3.73(.69) | | | |
| | | | 남 | 3.67(.61) | (B) | | |
| | | | 여 | 3.68(.70) | | .07 | .789 |
| | | | A × B | | | .78 | .073 |
| 능력의 향상 | 4.27(.80) | 4.33(1.05) | 인문 | 4.14(.72) | (A) | 2.81 | .095 |
| | | | 실업 | 4.37(.84) | | | |
| | | | 남 | 4.33(.89) | (B) | | |
| | | | 여 | 4.22(.71) | | .56 | .452 |
| | | | A × B | | | .004 | .949 |

** p<.01

출처 : Kabat, Petzold, Götze & Coenen(1995) (조사대상자 연령:14-18세, 남 565명, 여 789명)

<표 6> 폭력에 대한 태도

| | 전체 | 인문 | 실업 | χ ² (유의도) | 남 | 여 | χ ² (유의도) |
|----------------|------------|-----------|-----------|----------------------|-----------|-----------|----------------------|
| 개인적인 이유 | | | | | | | |
| 의견관찰 | 32(21.6%) | 8(13.3%) | 24(27.3%) | 4.09*(.043) | 21(28%) | 11(15.1%) | 3.65(.056) |
| 타인혐오 | 17(11.6%) | 4(6.7%) | 13(14.9%) | 2.37(.123) | 14(8.9%) | 3(4.2%) | 7.55**(.006) |
| 불쾌할 때 | 26(17.6%) | 6(10%) | 20(22.7%) | 3.99*(.046) | 20(27%) | 6(8.1%) | 9.14**(.002) |
| 보수주의에 대한 방어 | | | | | | | |
| 사회적 약자 보호 | 109(73.2%) | 45(75.0%) | 64(71.9%) | .17(.676) | 60(80%) | 49(66.2%) | 3.60(.058) |
| 나찌 추방 | 84(56.4%) | 40(66.7%) | 44(49.4%) | 4.32*(.038) | 45(60.0%) | 39(52.7%) | .86(.369) |
| 외국인과 좌익에 대한 방어 | | | | | | | |
| 좌익추방 | 46(30.9%) | 14(23.3%) | 32(36.0%) | 2.67(.102) | 27(36.0%) | 19(25.7%) | 1.86(.173) |
| 외국인에 대한 경계 | 26(17.9%) | 1(1.7%) | 25(29.4%) | 18.39***(.000) | 14(19.2%) | 12(16.7%) | .03(.859) |
| 폭력절대 반대 | 74(50.0%) | 34(56.7%) | 40(45.5%) | 1.79(.180) | 34(45.9%) | 40(54.1%) | .97(.324) |
| 법의 허용 범위에서 찬성 | 66(44.3%) | 21(35.0%) | 45(5.6%) | 3.57(.061) | 38(50.7%) | 28(37.8%) | 2.48(.115) |

* p<.05, ** p<.01, *** p<.001

<표 7> 독일인으로서의 정체성

| 전체빈도 (%) | 인문계 | 실업계 | 남 | 녀 | 부고학력 | 부저학력 | 모고학력 | 모저학력 | |
|----------------------|----------------|---------|------------|-----------|------------|-----------|------------|----------|----------|
| 독일인으로서의 정체성 | 90(60%) | 47(81%) | 43(51.8%) | 44(62.9%) | 46(64.8%) | 35(72.9%) | 46(57.5%) | 35(72.9) | 53(58.2) |
| 동독인으로서의 정체성 | 51(34%) | 11(19%) | 40(48.2%) | 26(37.1%) | 25(35.2%) | 13(27.1) | 34(42.5) | 13(27.1) | 38(41.8) |
| χ ² (유의도) | 12.63***(.000) | | .057(.811) | | 3.06(.080) | | 2.91(.088) | | |

*** p<.001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고 34%가 동독지방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집단간 차이를 보면, 인문계 학생들의 경우 81%가 독일인으로 생각하고 19%만이 동독인으로 생각한다고 답한 반면에, 실업계 학생들의 경우 상당히 많은 비율의 학생들(48.2%)이 동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별, 부모 학력에 따른 집단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7) 독일사회에 대한 태도

7-1) 독일사회의 발전방향

앞으로 독일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70%의 학생들이 자국의 이익을

<표 8> 독일 사회의 발전방향

| | 전체빈도 | 1991 ¹⁾ | 인문 | 실업 | 부고학력 | 부저학력 | 모고학력 | 모저학력 |
|----------------|------------|--------------------|------------------|---------|---------------|---------|---------------|---------|
| 외국인에 대한 개방 | 85(59%) | 9.8% | 50(80%) | 35(40%) | 36(73%) | 41(50%) | 35(68%) | 50(55%) |
| χ^2 (유의도) | | | 29.66 *** (.000) | | 6.60 * (.010) | | 2.32(.127) | |
| 외국인 망명허용 | 103(69.1%) | 55.6% | 54(90%) | 49(55%) | 41(82%) | 54(64%) | 62(66%) | 40(76%) |
| χ^2 (유의도) | | | 19.85 *** (.000) | | 4.76 * (.029) | | 1.68(.195) | |
| 서유럽지향 | 75(50.3%) | 27.1% | 36(61%) | 39(44%) | 27(55%) | 41(41%) | 29(88%) | 45(48%) |
| χ^2 (유의도) | | | 3.68(.055) | | 40(.526) | | 1.20(.273) | |
| 동유럽지향 | (31.5%) | 17.0% | 8(13%) | 39(44%) | 11(22%) | 29(34%) | 11(21%) | 35(37%) |
| χ^2 (유의도) | | | 15.80 *** (.000) | | 2.34(.125) | | 4.18 * (.041) | |
| 자국이해 관심 | 105(70.5%) | 40.0% | 37(62%) | 68(77%) | 32(64%) | 62(74%) | 32(61%) | 71(77%) |
| χ^2 (유의도) | | | 3.66(.055) | | 1.72(.189) | | 3.92 * (.046) | |

* p<.05, *** p<.001

출처 : Hofmann(1995) (조사대상자 연령 : 16-18세, 남 124명, 여 110명)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외국인에 대해 개방적(59%)이고, 외국인의 망명을 허용하며 (69.1%), 서유럽지향적(50.3%)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학생들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 동유럽 지향적(31.5%)인 정책을 펴야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약 1/3 정도 있었다. Hofmann(1995)의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1991년도에 비해서 외국인에 대한 개방정책에 대해 지지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자국에 대한 이해를 보호해야한다거나, 서유럽지향, 동유럽지향의 경향을 보이는 학생들의 비율도 모두 증가하였다. 집단간 차이를 보면, 외국인에게 개방, 외국인의 망명 허용과 같은 개방적 정책은 인문계 학생들로부터 더욱 지지되고, 실업계 학생들로부터는 동유럽 지향적인 보수적 정책이 지지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부모의 학력과 관

련되었다.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 경우 외국인에 대해 더 개방적이고 외국인 망명을 허용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어머니의 학력이 낮은 경우에 더 동유럽 지향적으로 나타났다.

7-2) 동독지방 경제 문제의 원인

<표 9>에서와 같이 현재 동독지방에서의 경제문제의 원인에 대해 정부가 동독지방의 특수성에 대해 제대로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77%)과 40년의 구 동독의 경제 실정(失政)(53%)과, 동독지방에서 여전히 무능한 구세대가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 (53%)과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적 현상(52%)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에 급속한 통일 때문이라고는 비교적 적은 수의 학생들 (34%)이 생각하고 있어 통일 속도에 대해서는

<표 9> 동독지방 경제 문제의 원인

| | 전체빈도(%) | 1991 ^{b)} | 집단빈도(%) | χ^2 | 유의도 |
|------------------------|----------|--------------------|------------------------------|----------|------|
| 40년 경제실정 | 80(53%) | 56.9% | 인문 41(69.1%) 실업 39(44.3%) | 9.02 ** | .003 |
| 급속한 통일 | 51(34%) | 27.7% | 인문 15(25%) 실업 36(40.%) | 3.99 * | .046 |
| 시장경제로의 전환 | 78(52%) | 36.9% | 인문 27(45.0%) 실업 51(57.3%) | 2.17 | .140 |
| 동독지역의 인사정책 | 79(53%) | 54.7% | 인문 25(41.7%) 실업 54(61.4%) | 5.56 * | .018 |
| 동독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배려 부족 | 115(77%) | 35.6% | 인문 38(63.3%) 실업 77(86.5%) | 10.93 ** | .001 |

* p<.05, ** p<.01

출처 : Hofmann(1995) (조사대상자 연령 : 16-18세, 남 124명, 여 110명)

부정적으로 인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1991년도의 조사 결과 (Hofmann, 1995)와 비교하면 특히 정부가 동독지방의 특수성을 제대로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 통일 이후의 정책에 대해 과거에 비해 더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집단간 차이를 보면 인문계 학생들이 과거의 경제 실정을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실업계 학생들이 통일의 속도, 동독지방의 인사정책, 정부의 정책에 대해 더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7-3) 독일 미래에 대한 신뢰도

독일 미래사회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를 알아보는 질문에서 <표 10>에서처럼 가족, 친지와 같은 가까운 주변인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았고, 인간 이성(理性)이나 주민 응집력에 대한 신뢰감도 상당히 높게 응답하였다. 반면에 정치인에 대한 신뢰감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특히 실업계 학생들에게서 더욱 그러하였다.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감은 인문계 학생들에게서

실업계 학생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인문계 중에서도 특히 남학생들(M= 4.52, SD=.78)에게서 이러한 경향이 강하였다. 반면 주민의 응집력에 대해서는 실업계 학생들이 인문계 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큰 신뢰감을 갖고 있었다. 1991년도 조사결과(Hofmann, 1995)와 비교하면 주민 응집력, 친구/친지에 대한 평가에서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정치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더 커졌다.

8) 동·서독지방 주민의 비교

<표 11>에서와 같이 동·서독지역 주민의 차이를 알아보는 질문에 대해 재산소유 상태의 차이를 지적한 학생이 90%나 되고, 가치관, 생활습관, 역사경험에 대해서도 66%이상의 학생들이 차이를 인정하였다. 특히 가치관의 차이를 느낀다는 학생의 비율은 1991년도 연구(Hofmann, 1995)에 비해서 더 커졌다. 집단간 차이를 보면 인문계 학생들이 실업계 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생활습관, 역사경험의 차이를 느꼈다고 응답했다.

<표 10> 독일 미래에 대한 신뢰도

| | 전체평균 (표준편차) | 1991 ⁹⁾ | 집단평균 (표준편차) | | F | 유의도 | | |
|---------|----------------|--------------------|----------------|-----|-----------|------|--------|------|
| 시장경제 | 3.24(1.00) | 3.71(.87) | 인문 3.30(.81) | (A) | .59 | .444 | | |
| | | | 실업 3.17(1.17) | | | | | |
| | | | 남 3.27(1.08) | (B) | | | .22 | .635 |
| | | | 여 3.18(1.00) | | | | | |
| | A × B | .13 | .719 | | | | | |
| 정치인 | 2.54(1.07) | 3.51(.84) | 인문 2.90(.99) | (A) | 12.09 *** | .001 | | |
| | | | 실업 2.30(1.09) | | | | | |
| | | | 남 2.63(1.05) | (B) | | | 1.45 | .229 |
| | | | 여 2.46(1.10) | | | | | |
| | A × B | .45 | .500 | | | | | |
| 인간 이성 | 4.05(1.21) | 3.18(.97) | 인문 3.93(1.09) | (A) | .91 | .340 | | |
| | | | 실업 4.13(1.29) | | | | | |
| | | | 남 4.01(1.24) | (B) | | | .26 | .610 |
| | | | 여 4.08(1.19) | | | | | |
| | A × B | .66 | .415 | | | | | |
| 민주주의 | 3.78(1.23) | 3.7(.82) | 인문 4.12(1.03) | (A) | 8.56 ** | .004 | | |
| | | | 실업 3.55(1.31) | | | | | |
| | | | 남 3.89(1.34) | (B) | | | 2.92 | .089 |
| | | | 여 3.66(1.11) | | | | | |
| | A × B | 4.79 * | .030 | | | | | |
| 주민의 응집력 | 4.07(1.10) | 2.85(.84) | 인문 3.37(1.02) | (A) | 9.50 ** | .002 | | |
| | | | 실업 4.29(1.10) | | | | | |
| | | | 남 4.25(1.12) | (B) | | | 4.68 * | .032 |
| | | | 여 3.88(1.06) | | | | | |
| | A × B | .56 | .454 | | | | | |
| 조합 | 3.42(.97) | 3.03(.63) | 인문 3.27(.88) | (A) | 2.32 | .130 | | |
| | | | 실업 3.52(1.01) | | | | | |
| | | | 남 3.63(.96) | (B) | | | 5.37 * | .022 |
| | | | 여 3.20(.94) | | | | | |
| | A × B | 3.15 | .078 | | | | | |
| 친구/친지 | 4.89(1.04) | 3.6(.35) | 인문 4.80(1.05) | (A) | .70 | .402 | | |
| | | | 실업 4.94(1.04) | | | | | |
| | | | 남 4.83(1.10) | (B) | | | .36 | .546 |
| | | | 여 4.95(.99) | | | | | |
| | A × B | .28 | .598 | | | | | |
| 가족/자신 | 5.16(.94) | 4.23(.67) | 인문 5.12(.87) | (A) | .24 | .625 | | |
| | | | 실업 5.19(.99) | | | | | |
| | | | 남 5.11(1.09) | (B) | | | .30 | .581 |
| | | | 여 5.22(.76) | | | | | |
| | A × B | .66 | .417 | | | | | |

* p<.05, ** p<.01

출처 : Hofmann(1995) (조사대상자 연령 : 16-18세, 남 124명, 여 110명)

<표 11> 동·서독 청소년의 특성 차이

| | 전체빈도(%) | 1991 ⁽¹⁾ | 집단빈도(%) | χ^2 | 유의도 |
|------|----------|---------------------|--------------|-----------|------|
| 재산소유 | 135(90%) | 77.2% | 인문 58(96.7%) | 3.74 | .053 |
| | | | 실업 77(87.5%) | | |
| | | | 남 68(90.7%) | .05 | .811 |
| | | | 여 67(91.8%) | | |
| 가치관 | 118(79%) | 34.9% | 인문 50(83.3%) | .811 | .368 |
| | | | 실업 68(77.3%) | | |
| | | | 남 59(78.7%) | .10 | .744 |
| | | | 여 59(80.8%) | | |
| 생활습관 | 116(77%) | 66.8% | 인문 52(88.1%) | 5.03 * | .025 |
| | | | 실업 64(72.7%) | | |
| | | | 남 65(86.7%) | 5.53 * | .019 |
| | | | 여 51(70.8%) | | |
| 역사경험 | 99(66%) | 61.6% | 인문 53(88.3%) | 20.94 *** | .000 |
| | | | 실업 46(52.3%) | | |
| | | | 남 57(76.0%) | 5.69 * | .017 |
| | | | 여 42(57.5%) | | |

* p<.05, *** p<.001

출처 : Hofmann(1995) (조사대상자 연령 : 16-18세, 남 124명, 여 110명)

<표 12> 동·서독인에 대한 청소년의 평가 차이

| | 동독인(표준편차) | 서독인(표준편차) | t | 유의도 |
|----------------|------------|------------|----------|------|
| 1 이타적 자세 | 4.44(.98) | 3.50(1.09) | 7.76 *** | .000 |
| 2 자신의 발전에 관심 | 4.20(.93) | 4.65(1.13) | 5.13 *** | .000 |
| 3 정치적 개방성 | 4.12(.99) | 4.13(.91) | .06 | .947 |
| 4 타민족에 대한 연대의식 | 4.19(1.00) | 3.87(.94) | 3.28 ** | .001 |
| 5 학교, 직업교육 | 4.40(1.01) | 4.57(.94) | 1.80 | .074 |
| 6 사회성 | 4.61(.93) | 4.07(.96) | 4.84 *** | .000 |
| 7 업적 지향성 | 4.78(.93) | 4.12(.96) | 5.60 *** | .000 |
| 8 파시즘의 거부 | 3.96(1.25) | 4.02(1.15) | .52 | .601 |

* p<.05, ** p<.01, *** p<.001

동독지방의 주민들과 서독지방의 주민들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표 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타적 자세, 업적지향성은 동독지방 주민들이

더 강하다고 평가하는 반면에, 서독지방 주민들이 자기의 발전에 더 관심을 보인다고 응답하였다.

III. 결론 및 논의

통일 이후 동독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가치관, 대처행동, 자기효능감 및 심리적 안녕감과 사회인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통일 이후 동독지방 청소년들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주 언급되었던 폭력사용에 대한 태도와 독일 사회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통일이 된지 9년째 되는 시점에서 볼 때 청소년들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적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와 같다.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살펴본 결과 직업, 가족, 학업과 같은 사적 영역을 중요하다고 하고 성과 지향적인 경향을 강하게 보였다. 통일이후 동독 지방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가치관의 변화는 개인주의화와 다양화로 정리될 수 있다. 정치, 사회적 가치의 실현보다는 개개인의 인생설계에 대한 관심이 많고 물질지향적인 경향이 강한 것은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Kuhnke, 1997). 한편 일부에서 동독지방 청소년들이 자아중심적이며, 이타적 가치나 연대의식은 약화된 것으로 우려하였는데(Friedrich & Förster, 1996), 이와 달리 청소년들은 사회적 관심의 실현이나 인본주의적 가치의 추구가 중요하게 인지했다.

미래에 대한 신뢰정도에서도 가치관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적 영역에서 더 신뢰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통일 이전에는 이른바 공적 영역과 사적영역의 구별이 엄격하였는데 공적영역에서는 개인적 삶의 구현이 제한되고 억압적 힘의 구조를 수용한 반면에 사적 영역, 특히 가정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비교적 자유롭게 표현하고 정서적 안식을 구하였다(Friedrich & Förster, 1996). 즉 당시 청소년들은 부모의 이중적 삶의 양식을 보

며 성장하였는데 통일 후 이러한 구별이 약화된 것은 청소년들이 덜 모순적인 사회화조건에서 성장하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처행동에서는 상황통제, 사회적 자원의 활용, 능력의 향상과 같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하고, 자기 효능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심리적 안녕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자신감이 있으며 자신의 상황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인지하는 등 청소년들의 적응상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려할 바는 없는 것 같다.

폭력에 대해서는 50% 정도의 학생들만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으나, 정치적 이유에서 폭력이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폭력 유발의 잠재적 위험요소가 내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독일의 정책에 대해서 대체로 외국인에 대해 개방적이어야 하고, 정치적으로는 서유럽지향적이어야 한다는 개방적 입장을 취한 학생의 비율이 더 높지만 동유럽지향적이어야 한다는 보수적 학생의 비율도 높아 청소년들의 의식 속에 양극적 경향을 반영했다. 동독지방 문제의 원인에 대해 통일 정부의 실책을 주요 원인으로 들고 있고 통일 속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지는 않았다. 역사적 경험 뿐 아니라 가치관, 생활습관 등에서 동·서독 지방 주민들의 차이가 있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이들간의 이질감이 쉽게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의 학생들이 독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 반면에 1/3의 학생들이 동독지방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가지고 있다. 구동독 청소년들이 동·서독지방 주민들을 평가한 바에서도 동독지방 주민들에 대한 평가가 더 긍정적이나, 이

를 배타적인 '우리-그들-의식'으로 혹은 과거에 대한 향수로 해석하기보다는 자신이 소속한 집단에 대한 정서적 연대감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결과들과 비교하면 과거에 비해 개인적 자원인 가치관, 자기효능감, 대처양식 등에서 더욱 긍정적인 적응양상을 보이고, 통일 독일 사회에 대해서는 더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적응양상을 집단별로 비교해 보면 자신에 대한 평가는 성별에 따라 다르고, 사회에 대한 평가는 주로 학교 종류(실업계/인문계)에 따라 달랐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이 낮은 것은 선행연구(Betram, 1998)에서 지적되었듯이 통일 이후 사회, 경제적 조건이 여성에게 더 불리하게 전개된 까닭인 것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실업계 학생들은 인문계 학생들에 비해 폭력사용에 대해 더 긍정적이고 외국인에 대해 배타적이며 동유럽지향적이고, 독일인으로서보다는 동독지방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이 더 높고, 동독지방의 문제로 통일의 속도나 정부의 실책 등 외적 귀인을 하는 경향이 더 강하였다. 이는 실업계 학생들이 만성 실업 문제로 인문계 학생들에 비해 미래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는 정도는 변화 결과의 영향에 따라 다르다. 즉 실업계 학생들이나 여학생들의 경우 사회적 변화의 부정적인 경험을 더 많이 하는 집단으로서 통일 이후에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는데 더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정책적, 교육적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부모의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가 의미있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특이한 일이다. 부모의 실업이 자녀의 미래에 대한 기대, 심리적 안녕감

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가정의 불화와 같은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Golz et al., 1995)와 비교할 때 본 연구의 결과가 동독지방의 가정이 건재하기 때문인지, 혹은 독일의 청소년들이 이미 상당히 부모로부터 독립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인지는 더욱 심층분석을 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동독지방 주민들은 전반적으로 통일 직후에 모든 문제가 단숨에 풀릴 것 같은 환상에 가까운 낙관적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통일 후 2-3년이 지나도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실망감과 특히 실업과 같은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부딪히면서 동독지방 주민들이 통일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후 많은 연구들에서 93, 4년을 기점으로 동독지방 청소년들이 통일 이후 변화를 좀 더 현실적으로 수용하고 정서적인 적응도 호전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본 연구 결과도 이 같은 흐름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 동독지방의 청소년들이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있고 일부 영역에서는 과거보다 더욱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이미 3년 전 연구(Friedrich & Förster, 1996)에서 지적되었듯이, 그들은 지금 상황에 대한 다른 대안이 없음을 익히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독일 통일 이후 심리적 통일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지만 청소년들의 경우 잘 적응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통일직후 희망찬 모습에서, 실망감으로, 다시 현실을 수용하는 태도로 전환한 것은 청소년들이 성인에 비해 과거의 잔재, 모순의 경험을 비교적 적게 경험하였고 또 독일의 건전한 경제구조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Mayer, 1996). 통일 이후 청소년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과연 어떠한 교육적, 정책적 노력이 있었는가에 대한 연구는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이에 대한 고찰은 후속연구로 미룬다.

참고문헌

- Behnken, I., Günther, C., Kabat vel Job, O., Keiser, S., Karig, U., Krueger, H., Lindner, B., Wensierski, H.J.v. & Zinnecker, J.(1991). Schülerstudie '90. Jugendliche im Prozess der Vereinigung. Weinheim : Juventa.
- Betram, B.(1998). Junge Frauen in Qualifizierungs- und Beschäftigungsmassnahm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Arbeitsbezogene Jugendsozialarbeit. Deutsche Jugendinstitut e. V.
- Diewald M. & Mayer, K. U.(1996). Zwischenbilanz der Wiedervereinigung. Leske Budrich, Opladen
- Förster, P., Friedrich, H., Müller, H., & Schbart, W.(1993). Jugend Ost-Zwischen Hoffnung und Gewalt. Opladen.
- Friedrich, W. & Förster, P.(1996). Jugend im Osten. Opladen : Leske + Budrich.
- Friedrich, W. & Griese, H.(1991). Jugend und Jugendforschung in der DDR. Opladen: Leske + Budrich, Opladen.
- Golz, L.(1994). Untersuchungen zum Sozialisationsprozess Jugendlicher in der strukturschwachen Region Neubrandenburg.
- Hofmann, J.(1995). Identitätskonflikte, Reaktionen und Neuorientierungen in der ostdeutschen Bevölkerung beim Übergang in die Gesellschaf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KSPW-Froschungsbericht (unveröff.)
- Hurrelmann, H.(1991). Sozialisation und Gesundheit. Weinheim : Juventa.
- Jerusalem, M.(1990). Persönliche Ressourcen, Vulnerabilität und Stressleben. Göttingen : Hogrefe.
- Kabat vel Job, O., Petzold H., Götze, A., & Coenen E.M.(1995). Bewältigungsverhalten von Schülern und jungen Erwachsen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KSPW-Froschungsbericht (unveröff.)
- Kirsch, B., Franz, W., Herboth, J., Mallwitz, G., Meckelmann, V., Regusch, L.A., & Aleksejewa, J.W.(1995). Untersuchungen zu Problemlernen und-bewältigung Potsdamer Schüler. Forschungsbericht.
- Klages, H.(1983). Werte. In G. Endruwelt & G. Trommsdorff (Hrsg.). Wörterbuch der Soziologie. Stuttgart 1983.
- Kuhnke, R.(1997). Wertewandel bei jugendlichen und jungen Erwachsenen in Ostdeutschland. In H. Sydow (Hrsg.) Entwicklung und Sozialisation von Jugendlichen vor und nach der Vereinigung Deutschlands. Leske + Budrich : Opladen.
- Mayer, K. U.(1996) Lebensverläufe und Transformation in Ostdeutschland - eine Zwischenbilanz. In M. Diewald & K.U. Mayer (Hrsg.) Zwischenbilanz der Wiedervereinigung. Leske + Budrich, Opladen
- Petzold, H.G., & Joy, J.M.(1996). Protektive Faktoren und Prozesse. unveröff. Manuskript
- Reimann, H.(1985). Basale Soziologie. Opladen : WVG.
- Roeder, M., & Baumert, J. (1994). Bildungsverläufe und psychosoziale Entwicklung im Jugendalter. Zwischenbericht für die Schulen Max-Planck-Institut für Bildungsforschung Berlin.
- Schmidtschen, G.(1994). Jugend in Sachsen. Orientierungen und Aktivität, Frustration und Gewalt, Ziele und Hoffnungen im Jahre 1994. Forschungsbericht. Leipzig und Zürich.
- Schnabel, K., Baumert, J., & Oeder, P. M.(1994). Wertewandel in Ost und West-Ein Vergleich von Jugendlichen und Erwachsenen in den

- neuen und alten Bundesländern. In G. Trommsdorff (Hrsg.). Psychologische Aspekte des sozio-politischen Wandels in Ostdeutschland. Berlin : Walter de Gruyter.
- Starke, U.(1995). Jugend in Leipzig vor und nach der Wende. KSPW-Forschungsbericht (unveröff.)
- Trommsdorff, G.(1994). Psychologische Probleme bei den Transformationsprozessen in Ostdeutschland. In G. Trommsdorff (Hrsg.). Psychologische Aspekte des sozio-politischen Wandels in Ostdeutschland. Berlin : Walter de Gruyter.
- Ulich, H.(1985). Psychologie der Krisenbewältigung. Weinheim : Juventa.
- Veen, H.J.(1994). Eine Jugend in Deutschland? Orientierungen und Verhaltensweisen der Jugend in Ost und West. Opladen : Leske + Budrich.
- Wagner, C. & Sydow, H.(1996). Entwicklung und Sozialisation von Jugendlichen vor und nach der Vereinigung Deutschlands. In S. Hormuth, W.R. Heinz, H.J. Konradt, H. Sydow & G. Trommsdorff (Hrsgs.) Individuelle Entwicklung, Bildung und Berufsverläufe. Opladen : Leske + Budrich.
- Zielke, M. & Kopf-Mehnert, C.(1978). Veränderungsfragebogen des Erlebens und Verhaltens. Weinheim : Peltz Verlag.